

새 책

▶해몽전파사(신해옥 지음)=시인의 첫 소설이다. 비 오는 날 우연히 '해몽전파사'에 들르게 된 '나'가 간밤에 꾸 꿈을 팔고 이를 계기로 전파사에서 열리는 갖가지 꿈 모임에 참석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꿈을 교환하고 공유하는 사람들의 기록. 작가는 미스터리하면서도 아름다운 꿈의 이미지를 고스란히 언어로 옮기며 독자를 꿈으로 초대한다. 창비. 1만4000원.



▶나는 예수입니다(도올 김용옥 지음)= 작은 제복처럼 '도올의 예수전'이지만 예수가 자신을 고백하는 자서전처럼 쓰였다. 2000년 전 갈릴리 풍진 속의 예수가 담담히 행한 천국운동의 실상이 그려졌다. '마가복음' 속에 예수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50년의 신학 탐색 여정을 보내온 도올이 예수를 오늘날 인물로 살려냈다. 통나무. 1만6000원.



▶결정을 못해서 고민입니다(스기우라 리타 지음·이웅욱 옮김)='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점심은 뭘 먹을까'. 날마다 선택의 순간을 마주한다. 일상의 작은 부분부터 취직, 결혼, 임종처럼 커다란 갈림길까지. 그 선택으로 인생은 크게 달라진다. 저자는 '정서적 선택력', '논리적 선택력'으로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한 해결책을 꺼내준다. 이너북. 1만5000원.



▶출신(사샤 스타니시치 지음·권상희 옮김)=2019 독일도서상 수상작이다. 소설은 2018년 3월 치매에 걸린 크리스티나 할머니와 그로부터 10년 전 독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자필 이력서를 쓰는 작가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력서를 쓰며 던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할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이 모든 게 나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소설은 그 답을 찾는 여정이다. 은행나무. 1만6000원.



▶곰과 새(김용대 지음)=산에서 내려온 커다란 곰은 겁 없이 들어간 집 안에서 겁난 새와 마주한다. 새장 안에 갇힌 새를 보자마자 이빨로 새장을 물어뜯는 곰은 이를 지켜보며 앞일을 미루어 짐작하는 우리에게 소리 없는 메시지를 건넨다. 작가는 글 없이 그림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흑백 대미가 힘 있는 그림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선입견과 편견을 일깨운다. 길벗어린이. 1만3000원.



▶내 친구 지구(패트리샤 매클라클랜 지음, 프란체스카 산나 그림)=겨울 낮잠에서 깨어난 지구는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을 차곡차곡 펼쳐 보인다. 땅속 씨앗부터 푸른 바닷속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도 하나하나 보듬는다. 지구의 날 50주년을 기념해 세계적 아동문학상인 뉴베리 상을 수상한 작가가 글을 쓰고, 불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림을 그렸다.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게 한다. 김지은지자



왜 1980년대는 24시간 이용을 허했을까

김학선의 '24시간 시대의 탄생'

야간통행금지제도 폐지 등 시간을 국민통치 수단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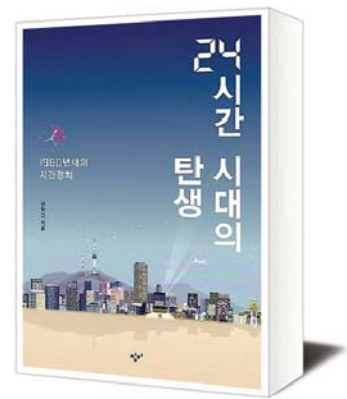
1980년대는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신군부에 의해 시작됐다. 압울하게 새로운 10년의 첫발을 뗐지만 민주화운동으로 대통령직선제를 이루어냈고 올림픽을 치르는 등 대한민국사회가 민주화와 세계화로 나아갔다. 사회적 모순과 갈등이 융광로처럼 들끓었지만 사회가 분열되거나 붕괴되지는 않았다.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김학선의 '24시간 시대의 탄생'은 부제 그대로 '1980년대의 시간정치'를 돌아보고 있다. 그동안 1980년대 연구가 정치적으로 상반된 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을 조명하거나 정권 유지를 위한 이른바 '3S 정책'이나 경제 발전을 살폈다면 이 책은 1980년대 24시간 시대가 열림으로써 하루 24시간이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자원으로

로 적극 개발되고 활용되면서 사회적 갈등관계가 조율되는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이후 등장한 신군부는 이전 정권과의 단절을 선언한다. 광복 이후 시행되어온 야간통행금지제도 철폐가 그중 하나다. 이는 표면적으로 신군부가 국민에게 24시간의 자유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저자는 신군부가 야간통금 해제를 통해 '자율'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규율로 천명하고 국민의 24시간을 통치의 수단이자 통제의 대상으로 삼고자 했다고 봤다. 야간통금 해제는 24시간 이용이 자유로워지면서 자본의 순환이 빨라졌고 가속도가 붙은 시간은 신자유주의적 속도경쟁으로 내모는 계기도 되었다.

이 시기 국익과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한국방송공사가 1981년부터 격년으로 4차례 '국민생활시간조사'도 실시



했다. 저자는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 일상시간이 국가의 자원으로 개념화되면서 국내적으로 국민을 재결집하고 동원하는 자원으로 활용되었고 국외적으로는 국가 간 경쟁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으로 쓰였다고 했다.

1961년 폐지된 서머타임제의 재도입은 애초에 내건 '자유시간의 증가'는 이루지 못한 채 오히려 노동시간이 연장되는 결과를 불러왔다. 그 시대에 상대적으로 많았던 임시공휴일은 국민을 동원하거나 위무하는 수단으로 작동했다. 창비. 1만8000원. 전선희기자

살아남은 증언자가 까이고 추락하는 사회

조정환의 '증언혐오'와 '까판의 문법'

"나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배우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글을 남긴 신인배우 장자연은 2009년 3월 7일 의문의 주검으로 발견된다. 신인배우 윤지오는 장자연의 죽음과 관련해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2018년까지 13번에 걸쳐 증언했다. 23만 5796명은 "고 장자연의 죽음을 밝히주세요"라며 국민청원을 했고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진다.

이같은 상황은 2019년 4월 16일 '윤지오씨 말은 100% 진실일까요?'란 SNS 포스팅이 뜨면서 달라진다. 증언자의 핵심 진술을 부정하는 주장을 담은 이 글은 윤지오에 대한 명예훼손, 사기 혐의 고발로 이어졌다. 이제 '누가 왜 장자연을 죽게 만들었는가?'라는 사회적 물음 대신에 '윤지오는 사

기범죄자인가?'라는 사법적 물음이 관심사가 되어 버렸다.

다중지성의 자율성을 탐구해온 조정환의 '증언혐오'는 동시에 출간된 '까판의 문법'과 더불어 세월호 참사 5년이 되는 날에 시작된 '증언선 윤지오호의 침몰'이라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약 7개월간에 걸쳐 여러 경로에서 입수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하고 면밀하게 검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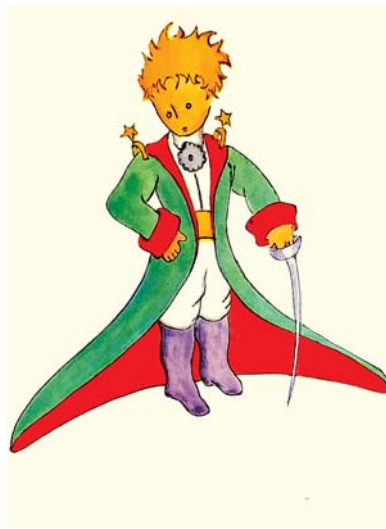
그는 윤지오를 증언자에 대한 마녀사냥의 희생자로 본다. 윤지오의 말 중에서 '영리하게' 처럼 토막토막 절취한 단어들을 가져가 그의 증언을 의심하게 만드는 키 워드로 쓰였는데 전체 대화 맥락을 읽으면 그 의미는 정반대가 된다고 했다.



윤지오가 마녀사냥을 당하기 전에 무엇을 증언했고 왜 그것이 장자연 사건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지도 살폈다. 장자연은 피해자이기 이전에 윤지오에 앞서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증언자였음에 주목한 저자는 그들의 증언에 담긴 내용이 여러 사람의 경험담과 통계가 보여주는 현실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상황적 진실성을 갖는다고 썼다. 갈무리. '증언혐오' 2만2000원, '까판의 문법' 2만3000원.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 책 '어린 왕자' 갈리마르 에디션
"중요한 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거야"



생텍쥐페리의 어른들을 위한 동화 '어린 왕자'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를 찾아가 보자고 말한다.

"내 비밀이 이거야. 아주 간단해.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만 잘 보인다는 거야. 중요한 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야." 어느 책에 나오는 구절인지 짐작할 것이다.

양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동화 '어린 왕자'다.

1943년 4월 6일 미국 뉴욕에서 영어판과 프랑스어판으로 묶였고 3년이 흐른 1946년 4월 가스통 갈리마르에 의해 작가의 고국 프랑스에서 출간된 '어린 왕자'는 지금까지 200개 언어로 번역됐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400여개 출판사에서 '어린 왕자'를 번역해 내놓았다.

2020년은 생텍쥐페리 탄생 120주년이 되는 해다. 1973년 김현의 번역으로 '어린 왕자'를 국내에서 처음 단행본으로 선보였던 문예출판사가 이번엔 '어린 왕자: 출간 70주년 기념 갈리마르 에디션'을 우리말로 옮겼다.

생텍쥐페리 탄생 120주년
출간 70주년 기념판 번역
탄생 얽힌 이야기 등 소개

이 아니라 개인·도시·관 소 작품을 모은 100여 개 도판과 작가가 남긴 편지와 미

공개 원고를 수록했다. 1943년 미국판과 1946년 프랑스판 초판본 발간 시 번역 오류가 생긴 상황도 상세히 설명했다. 역자가 풍부하게 달아놓은 주는 이해의 폭을 넓힌다.

맨 앞장 헌사에 '어른들은 누구나 다 처음엔 어린이가 들어있다'란 대목이 나오는 '어린 왕자'는 생텍쥐페리가 친독일 인사라는 소문과 아내와의 갈등으로 정신적 고통이 컸던 무렵에 고독한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며 써내려간 작품이다. 동화 속 배경으로 등장하는 사하라사막은 "자신이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자 "인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어린 왕자'의 첫 장면엔 코끼리를 삼키고 소화하는 중인 거대한 보아뱀 그림이 소개된다. 그림의 의미를 읽지 못하는 어른들은 아이에게 그림 대신 지리, 역사, 산수, 문법 같은 진지한 과목을 공부하라고 야단친다. 동화 속 화자는 이같은 경향을 들려주며 우리에게 상상력에 귀를 기울이고 눈에 보이는 진부한 것들 너머에 있는 세계와 자아를 찾아가 보자고 제안한다. 정장진 옮김. 2만2000원. 전선희기자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텍스보청기 기준금액 13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텍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텍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금~6급)

*와이텍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텍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31,000원 (90%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텍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텍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로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있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텍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인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 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텍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텍스의 센소그래프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텍스 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9-GN180079



와이텍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 755.1005

